



강북구의회
GANGBUK DISTRICT COUNCIL

의정 활동 보도

2013년 03월 25일
(월요일)

동북일보 5면

박문수 의원, 소상공인 위한 도로점용료 10%감면 요청

영업안전성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 기대

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(위원장 이백균)는 지난 1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을 심의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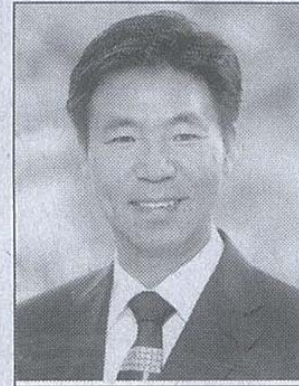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은 경기침체 및 품목제한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경제적 부담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점용료 부과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.

특히, 이날 조례(안) 심사에서

박문수 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도로점용료 10%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하였다.

박문수 의원(운영위원회 위원장/사진)은 “현재 도로변의 음식점 등 영업용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객 등 차량의 진·출입을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경계석의 턱을 낮추는 등 차량 출입시설 설치공사가 이루어지며 도로 점용허가 신청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”며 “이번 조례(안) 개정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 상인들의 영업안전성을 보장하

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

〈최동수 기자 cds0012000@hanmail.net〉

서울포스트 4면

박문수 의원 도로점용료 10%감면 요청



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(위원장 이백균)는 3월 13일 오전 10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다.

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 및 품목제한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경제적 부담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점용료 부과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.

특히,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박문수 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도로 점용료 10%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하고 개정조례안에 수정되어 통과했다.

박문수 의원(운영위원회 위원장)은 “현재 도로변의 음식점에서는 차량의 진·출입을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경계석의 턱을 낮추는 공사가 이루어지며 도로 점용허가 신청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.”며 “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 상인들의 영업안전성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”고 밝혔다.

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% 감면

박문수 의원, 영세 상인들의 영업안전성 보장 효과

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13일 오전 10시 '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을 심의 의결했다.

이 개정조례안은 점용료 부과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특히, 박문수 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도로점용료 10%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하여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.

이 조례는 경기침체 및 품목제한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경제적 부담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도로변의 소규모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

공인들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박문수 의원은 "도로변의 음식점 등 영업용 시설을 운영하기 위

해서는 고객 등 차량의 진·출입을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경계석의 턱을 낮추는 등 차량 출입시설 설치공사가 이루어지며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"이라며 "소상공인 및 영세 상인들의 영업안전성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줄 것"이라고 밝혔다.

시사프리신문 4면

박문수 강북구의원

'소상공인 위한 도로점용료 10% 감면' 요청



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(위원장 이백균)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'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을 심의했다.

이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

고 개정조례안에 수정 통과돼 눈길을 끌고 있어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을 덜어 주는 등 큰 인기를 받고 있다.

박문수 의원(운영위원회 위원장)은 "현재 도로변의 음식점 등 영업용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객 등 차량의 진·출입

'영업안정성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큰 효과' 기대

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경기침체 및 품목제한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경제적 부담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점용료 부과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발의됐다.

특히,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박문수 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도로점용료 10%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하

을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경계석의 턱을 낮추는 등 차량 출입시설 설치공사가 이루어지며 도로 점용허가 신청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"며 "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 상인들의 영업안전성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"고 밝혔다.

유영일 기자

박문수 의원, 소상공인 위한 도로점용료 10%감면 요청

영세 상인들 영업안전성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



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.

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 및 품목제

한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경제적 부담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점용료 부과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발의됐다.

특히,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박문수 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도로점용료 10%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하고 개

정조례안이 수정돼 통과 눈길을 끌었다.

박문수 의원(운영위원회 위원장·사진)은 "현재 도로변의 음식점 등 영업용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객 등 차량의 진입·출입을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경계석의 턱을 낮추는 등 차량출

입시설 설치공사가 이루어지며 도로 점용허가 신청자에게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"며 "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 상인들의 영업안전성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"고 밝혔다.